

베른슈타인 수정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

강 신 준*

< 목 次 >

- I. 문제의 제기
- II. 베른슈타인 재해석의 전제
- III. 수정주의의 등장 배경 - 농업논쟁
- IV. 수정주의의 출발과정 - 지방의회 참가논쟁과
1848년 혁명해석
- V. 수정주의의 전면적 성립 - “사회주의의 제전제
및 사민당의 과제들”
- VI. 베른슈타인 수정주의의 현재적 의미

I. 문제의 제기

19세기 말 유럽사회는 세기의 전환을 앞두고 소위 세기 말적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사람들은 새롭게 열리는 세기를 불안과 기대가 교차되는 느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전혀 생소한 느낌이었고 그런 느낌의 밑바닥에는 19세기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온 일련의 사회적 변화가 자리잡고 있었다. 그런 사회적 변화는 일차적으로 유럽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의해 주도되었다. 즉 1840년대에 주요 유럽국가들에서 완성을 보게 되는 산업혁명은 유럽에서 초기 자본주의적 특성을 마감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1850년대 이후 유럽사회는 본격적인 산업화를 통해 자본주

* 동아대 경제학과

의적 발전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화의 본격적인 진전은 유럽사회의 내부에 중요한 두 가지 방향의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자본진영 내부에서 산업화의 본격적인 진전은 자본간 경쟁을 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통하여 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독점”이라는 소위 “새로운 경향”을 나타내 보이고 있었다.¹⁾ 둘째 그런 산업화의 진전은 자본과 필연적인 대자적 관계에 있는 노동진영 내부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산업화의 본격적 진전은 당연히 노동자의 숫적 증대를 가져왔고 그 결과 노동자계급은 이제 더 이상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대중으로 화하게 되었다. 게다가 유럽사회 전반에 걸친 산업화는 그로부터 야기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임금문제, 산업재해, 생활상태 등 노동문제에 있어서 유럽 각국 노동자들간의 차별성보다는 동일성을 증대시키는 경향으로 작용하였다. 노동자계급의 다수 대중으로의 변모, 그리고 계급 내부의 동일성 증대 등은 노동운동의 대중운동으로의 발전조건을 이루는 것이었고 그것은 세기 말에 이르러 유럽 전역에서 노동자 정당의 결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1875년 독일, 1882년 이탈리아, 1883년 러시아, 1884년 영국, 1885년 벨기에, 1887년 노르웨이, 1888년 오스트리아 및 스위스, 1889년 스웨덴 등의 순서로 사민주의 정당이 속속 등장하고 있었고 이들은 맑스 엥겔스의 헌신적이고 탁월한 영도력 아래 제2인터내셔널을 통한 강고한 국제적 연대를 이루고 있었다.²⁾ 그리고 이들 노동자 정당들은 제2인터내셔널의 노선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명시적으로 정권의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³⁾ 그것은 곧 새로운 사회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세기 말적인 느낌은 바로 자본주의의 새로운 발전경향과 노동자계급에 의한 새로운 사회의 출현과 관련된 것이었고 이 양자의 관련은 불안을 느끼고 있던 기득권층에게나 기대를 가지고 있던 노동자계급에게나 모두 지대한 관심을 쏟게 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기의 극적인 전환점이었던 1899년 3월 초에 발간된 약 200

1) 산업화의 진전이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유발하게 되는 필연적 과정, 그리고 그런 과정이 독점으로 발전하게 되는 일반적 경향에 대해서는 19세기 말 사회주의 노동운동 진영 내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었으며 이들 논의가 가장 잘 집약된 글로는 V. I. Lenin, *Imperialism*, International Publishers Company, Inc., New York 1933 참조.

2) 제2인터내셔널의 성립과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강신준, “제2인터내셔널 시기의 마르크스주의”, 『이론』(1992년 겨울)을 참조할 것.

3) B. Gustafsson, *Marxismus und Revisionismus*, Frankfurt 1972, S. 14.

쪽 분량의 베른슈타인의 저작 “사회주의의 제전제 및 사민당의 과제들(Die Voraussetzungen des Sozialismus und die Aufgaben der Sozialdemokratie)”(이하 “제전제”로 약칭한다)은 바로 그런 양자의 관련을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이론서였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발전의 “새로운 경향”이 새로운 사회의 출현에 미치는 영향을 노동운동의 입장에서 수용하고자 한 그의 오랜 고민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당시의 세기 말적인 느낌들을 거의 온전히 담고 있었고 바로 그런 시대적 분위기의 이론적 결과물이기도 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것은 이론적으로 고전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고전적 저작은 지난 한 세기 동안 비교적 올바른 대접을 받지 못해 왔다. 베른슈타인 자신이 이미 탄원하고 있듯이 그의 저작은 자신의 의도와는 명백히 위배되면서 반사회주의 진영에서는 맑스주의 이론의 오류에 대한 가장 확고한 증거물로서 이용되었으며 사회주의 진영 내부에서는 사회주의의 전면적 포기로 간주되었다.⁴⁾ 여기에는 대체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첫째는 이 저작을 둘러싼 논쟁과정에서 그가 범한 전술적 미숙함⁵⁾ 때문이었으며 둘째는 그가 독일사회에서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따라서 먼 미래의 목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던 사회주의 혁명이 1917년 러시아에서 성공해 버린 때문이었다. 그의 주장은 성공한 혁명의 현실에 의해 곧바로 명백한 오류로 단죄되었고 그에겐 변호의 기회가 거의 제공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고민은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대한 노동운동의 방향모색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고 그것은 사실상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의 올바른 반영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지만⁶⁾ 그런 고민의 출발점과는 상관없이 그가 범한 신성모독 - 사회주의의 혁명적 이행에 대한 모독 - 은 그의 고민 전체를 한꺼번에 단죄해 버리기에 충분했던 것이었다.

그는 사회주의 노동운동 내부에서 신성모독죄로 고발되었고(가장 선두에 선

4) E. Bernstein, *Evolutionary Socialism*, New York 1970, Introduction, P.xx.

5) “G. Vollmar an Bernstein 1899. 10. 28” 참조, in: B. Gustafsson, 앞의 책, S. 11/12.

6) B. Gustafsson, 앞의 책, S. 10-13: 베른슈타인 자신은 이 문제에 대해 스스로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이 글에서 얘기되는 거의 대부분 - 모두는 아닐지라도 - 은 사실상 이미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거나 혹은 적어도 암시했던 것들이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의 정당성은 그것이 어떤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발견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견된 것들을 인정하는 것에 있다”(E. Bernstein, *Die Voraussetzungen des Sozialismus und die Aufgaben der Sozialdemokratie*, Stuttgart 1899, S. 51).

고발인은 약관의 로자 룩셈부르크와 권위의 칼 카우츠키였다.)⁷⁾ 판결은 유죄로 결말을 보았다. 그는 “배신자”로 규정되었으며 그의 고민들에는 “수정주의”라는 낙인이 찍혀졌다. 그리고 뒤이은 러시아혁명의 성공에 의해 혁명적 이행을 모독했던 베른슈타인의 “배신행위”는 더 이상 항소의 기회를 잃고 말았다. 그리고 그러한 혁명이 정당화되던 거의 한 세기 동안 그에 대한 유죄판결은 흔들리지 않는 효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한 세기가 경과하고 나서 이제 바로 그 혁명이 정당성을 위협받게 된 지금 베른슈타인의 “배신행위”는 비로소 항소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느낌이다.⁸⁾ 그리고 그러한 베른슈타인의 항소에는 이제까지 그의 원고측의 논고에만 의존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의외로 가치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여진다. 또 하나의 세기 말인 지금 베른슈타인의 재검토가 의미를 갖는 소치는 바로 이 점에 있다고 보여진다.

이 글은 베른슈타인에 대한 지금까지의 인식이 상당부분 균형을 잃은 선입견과 그에 기초한 예단에서 비롯되었다는 문제의식 하에 베른슈타인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먼저 그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의 단초를 규명한다. 그리하여 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그의 문제제기의 배경들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런 객관적 검토를 통해서 베른슈타인의 문제제기가 맑스주의의 이론적 문제보다는 당시의 독일 사회주의 노동운동 내부의 문제, 특히 과제의 문제와 결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는 점을 논증하고 이런 관련으로부터 베른슈타인의 올바른 이해방향과 그의 현재적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 베른슈타인 재해석의 전제

베른슈타인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지금까지의 그에 대한 고발들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그의 유죄를 주장

7) Rosa Luxemburg, *Sozialreform oder Revolution?*(1899); Karl Kautsky, *Bernstein und das sozialdemokratische Programm, Eine Anti-Kritik*(1899).

8) 베른슈타인은 스스로 만년에 불셰비즘과 자신간의 적대적 관계를 숨기지 않았다. (Sidney Hook, Introduction to "Eduard Bernstein, Evolutionary Socialism", New York 1970, P. 16) 그리고 그 불셰비즘이야말로 그에게 한 세기 동안이나 항소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던 족쇄였다. 따라서 베른슈타인이 만일 부활한다면 그는 오늘날 불셰비즘의 붕괴에 가장 할 말이 많은 사람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하는 고발내용은 1899년 독일 사민당의 하노버(Hannover)대회에서의 최초의 고발로부터 지금까지 주로 그의 문제제기를 이론적인 문제로 국한시켜서 이해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즉 고발의 주된 내용은 맑스 엥겔스에 의해 이미 정식화되어 있던 사회주의의 혁명적 이행의 객관적 근거를 그가 부인했다는 점에 집중되어 있었고 따라서 논의는 주로 자본주의적 발전경향에 대한 맑스 이론의 해석의 문제로 집약되었다.

그는 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유럽에서의 자본주의적 발전경향의 새로운 양상들(자본의 집적 및 집중으로부터 야기되는 제반 양상, 소위 위에서 얘기한 바의 “새로운 경향”)이 혁명적 이행의 조건들을 성숙시켜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제거해 나가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따라서 혁명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멀어져 가고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것은 독일 사민당의 강령에 신성불가침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목표, 즉 사회주의로의 혁명적 이행강령에 대한 모독으로 해석되었으며 따라서 신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에게 가해진 비판은 그가 제기한 혁명의 조건들에 대한 그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었다. “제전제”가 발간되고 나서 로자와 카우츠키에 의해 이루어진 초기의 고발내용들은 자연히 자본주의적 발전경향에 대한 해석, 말하자면 이론적 설명의 과학성에 집중되어 있었다. 즉 논의는 주로 세기 말 유럽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던 “새로운 경향”이 맑스의 자본주의 발전경향 이론과 일치하느냐 않느냐의 문제로 집중되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고발의 내용은 베른슈타인의 문제제기의 이론적 정합성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었고 그 결과 그의 문제제기는 이론의 오류로 재단되었던 것이다. 이런 경향은 지난 한 세기 동안 그에게 가해진 모든 공격들의 전형을 이루는 것이었다. “수정주의”는 이론적 이단으로 규정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향에는 하나의 강한 의문이 남는다. 왜냐하면 베른슈타인은 수정주의자로 낙인이 찍히기 전에 이미 당내의 가장 탁월한 이론가였으며 그런 반론들의 내용에 대해 누구보다도 정통해 있었다. 그런 반론들은 주로 맑스 엥겔스의 이론적인 권위에 의존하는 것들로서 그들 이론의 내용을 단순히 반복적으로 재구성하는 정도의 범위를 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런 논의는 그가 이미 수없이 당의 기관지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정연하게 설명해 오던 것이었다. 즉 반론의 주된 내용을 이루던 맑스 엥겔스의 이론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앵겔스의 평가에서도 알 수 있듯이⁹⁾ 이미 그는 유럽에서 최고의 권위자였던 것이다. 독일 사민당 내에서의 그의 이론가로서의 권위는 무엇보다도 독일 사민당 강령의 역사적 출발점을 이루는 에어푸르트 강령을 그가 카우츠키와 함께 공동기초한 데서도 또한 명백히 드러난다.¹⁰⁾ 따라서 이론가로서의 그의 자질을 미루어 짐작할 때 그의 “제전제”는 적어도 맑스 이론에 대한 그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제전제”가 지적받게 될 반론에 대해 정통한 이해를 가지고 있던 그가 “제전제”를 집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여기에 베른슈타인 재해석의 필요성과 그 단초가 존재한다고 보여진다.

이런 인식을 보다 분명히 해주는 근거는 다시 문제의 단초를 이루는 “제전제”에서의 베른슈타인 자신의 고백이다. 그는 “제전제”의 영어판 서문에서 이 저작이 이론적 엄격성을 기해서 집필된 것이 아니었고 “때때로 급조하듯이 집필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결합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기본적인 목적(밀줄 필자)은 충분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제전제”를 추가적으로 개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¹¹⁾ 이는 “제전제”가 애초 이론적 “수정”을 목표로 집필된 것이 아님을 짐작케 한다. 그것은 새로운 고발자들의 주장처럼 새로운 이론의 정식화를 위해 집필된 것이 아니라 이론이 아닌 다른 “기본적인 목적”을 위해 집필되었던 것이다.

결국 그의 이단행위는 맑스 앵겔스의 이론에 대한 몰이해, 혹은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가 의도적으로 행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문제는 바로 이 다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며 바로 여기에 베른슈타인 수정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단초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의도된 반란을 사주한 배경, 즉 그의 “기본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 “기본목적”은 그 자신이 밝히고 있듯이 “그것은 독일어로 *Gegenwartsarbeit* - 사회주의 정당의 일상적 과업 - 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강조로서,

9) “Engels an Bebel 1885. 6. 22” in : MEWBd. 36, S. 336.

10) 독일 사민당의 맑스주의 정당으로서의 강령적 모태를 이루는 1891년의 에어푸르트강령은 제1부 강령이 카우츠키에 의해 제2부 강령이 베른슈타인에 의해 기초되었다. 그리고 이 강령은 당대회에서 두 사람의 이론적 권위에 대한 당의 신뢰 속에 열렬한 박수로 통과되었다.

11) E. Bernstein, *Evolutionary Socialism*, New York 1970, Introduction, P.x iiiff.

그런 과업이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거대한 변혁에 비해 매우 사소한 과업으로만 간주하고 따라서 대개는 거의 내켜하지 않고 마지못해서야 겨우 수행하는 과업들로 여겨져”¹²⁾ 온 것들이었다. 따라서 “제전제”의 배경을 이루는 것은 이론적 회의가 아니라 노동운동의 과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베른슈타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노동운동의 과제를 규정하는 당시 독일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조건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그런 검토는 대체로 그의 입장이 이단으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1890년 초¹³⁾의 시기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Ⅲ. 수정주의의 등장 배경 - 농업논쟁¹⁴⁾

베른슈타인이 엥겔스의 적극적인 신뢰 속에 이미 유럽 사회주의 노동운동 내에서 저명한 이론가로서의 위치를 탄탄하게 굳히고 있던 1890년, 독일 사회주의 노동운동은 중요한 변화의 계기를 맞고 있었다. 그것은 객관적인 조건의 결정적인 변화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한 변화는 두 가지 계기로 이루어져 있었다. 즉 독일 자본주의의 독점자본주의 단계로의 진입이라는 경제적인 변화와 더불어 독일 사민당이 새롭게 맞게 된 합법화의 계기가 곧 그것이었다. 그리고 이 두 계기 가운데 독일 사민당의 운명에 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후자의 계기였다.¹⁵⁾

비스마르크에 의해 1878년 만들어진 이후 12년 간이나 독일 사회주의 노동운동을 불법화하면서 지속되어 오던 사회주의자 탄압법은 1890년 제국의회에서 연장승인을 거부당하였다.¹⁶⁾ 그리하여 사회주의자 탄압법은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고 독일 사민당은 합법정당으로서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다.

12) E. Bernstein, 같은 곳.

13) 그가 구체적으로 입장을 변화시킨 시기에 대한 연구로는 P. Gay, *The Dilemma of Democratic Socialism, Bernstein's Challenge to Marx*, New York 1952; P. Angel, *Eduard Bernstein et l'évolution du socialisme allemand*, Paris 1961.

14) 여기에서 요약되고 있는 농업논쟁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강신준, 『수정주의 연구 1』, 이론과 실천 1991 참조.

15)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하는 전자의 요인과 관련해서는 Jürgen Kuczynski, *Die Bewegung der deutschen Wirtschaft von 1800 bis 1946*, Berlin/Leipzig(o. J.)를 참조.

16) 사회주의자 탄압법은 일종의 임시조치법으로서 매 4년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계속 효력을 갖는 한시적인 법이었다.

그리고 합법정당으로서 최초로 참여한 1890년 선거에서 독일 사민당은 약 20%의 득표율로 제국의회 내에서 제1당의 지위로 부상하였다.¹⁷⁾ 20%의 득표율은 대부분 도시지역으로부터 획득되었고 득표의 구성내용은 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에게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한 선거결과는 사회주의자 탄압법 하에서 사민당의 선전활동이 경제조직으로서 합법화되어 있던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였던 결과였다. 따라서 제한된 도시지역으로부터의 득표만으로도 전국적인 20%의 득표를 하였기 때문에 각 도시들, 특히 함부르크나 베를린 등과 같은 북부 프로이센 공업도시들에서의 지역득표율은 거의 50%가 넘는 절대적인 수준이었으며 이는 사회주의자 탄압법 하에서 일체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선전활동을 수행할 수 없었던 조건을 감안할 때 참으로 경이로운 성과였다. 그리하여 선거결과는 탄압법 하에서도 꾸준히 성장해 온 독일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자랑스러운 성과로 간주되었다. 독일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숫적으로 급격히 증가한 노동자들은 가혹한 탄압법 하에서도 대부분이 사민당의 우산 밑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이제 독일 사민당은 탄탄한 노동자계급의 지지를 바탕으로 권력의 획득을 먼 미래가 아니라 눈 앞의 가능성으로 보게 된 정당으로 되었다.

그런데 독일 사민당이 구체적으로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지지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그것은 곧 지금까지의 비합법조건 때문에 전혀 공개적인 선전활동을 수행할 수 없었던 농촌지역의 포섭이었다. 그리하여 독일 사민당은 권력 획득의 가능성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하여 1890년 할레 대회에서 대대적인 농촌선동을 결의하였다. 이미 탄탄하게 확보된 노동자들의 지지에도 당시 독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농민계급의 지지를 더하기만 하면 사민당의 권력획득은 명백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운동의 조건도 합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손쉬운 것으로 보여졌다. 농촌선동은 1891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1893년까지 사민당의 거의 모든 당력을 집중시킨 정력적인 형태로 수행되었다. 3년간 수행된 농촌선동의 결과는 1893년 제국의회 선거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그렇게 희망적으로 간주되던 사민당의 농촌선동은 1893년 제국의회 선거에서 실패로 판명났다. 그것은 당

17) 이것은 독일 사민당이 제국의회 내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득표율과 의석수는 별개였기 때문이다. 자세한 것은 강신준, 앞의 책, 72쪽 참조.

연히 그 해 가을의 쾰른 대회에서 당내 전반의 반성을 불러 일으켰고 이로부터 기회주의 논쟁으로 불리우는 농업논쟁이 시작되었다.

농업논쟁은 그 복잡한 경과를 논외로 한다면 이론과 실천의 문제를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었다. 논쟁의 핵심은 매우 단순한 것이었다. 3년간 수행된 농촌선동 과정에서 현장의 실천적 운동가들이 계속 부딪쳐야 했던 문제는 사민당이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무런 정책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었다. 사실상 사민당은 사회주의자 탄압법 하에서 아무런 공개적인 정치활동을 수행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그 활동영역은 외견상 합법조직으로 용인되어 있던 도시 노동조합들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농촌은 사민당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완전히 생소한 “신천지(Terra Incognita)”¹⁸⁾였던 것이다.

그 결과 사민당은 당시 독일 농민들이 겪고 있던 제반 어려움들, 즉 농산물 가격의 하락에 따른 부채증가와 이농현상, 토지가격의 상승, 제반 토지관련 세금의 과중 등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나 정책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런 정책부재의 농촌선동은 농민들로부터 거의 호응과 관심을 끌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문제의 절박성에 대해 가장 통감하고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현장의 실천가들이었고 이들의 문제제기는 따라서 농촌선동에서 농민들을 사민당의 우산 밑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농민들에게 당장 무엇 - 구체적으로는 농민들의 이해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농업정책 - 인가를 사민당이 내 놓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1894년 프랑크푸르트 대회로까지 이어진 이런 반성을 토대로 농업강령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에서 막상 농업강령 초안이 제시되자 이 초안은 사민당으로서는 모순적인 것임이 드러났다. 왜냐하면 당시 독일의 농민들은 자영소농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었고 사민당이 요구받던 농업정책은 바로 소자산가계급에 속하는 이들 자영소농에 대한 지원정책에 다름아니었다. 그것은 무산자계급의 이해를 토대로 자산가계급의 타도 - 즉 사회주의 혁명 - 을 목표로 하고 있던 사민당의 기본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실천적인 대응이 없이는 또한 농민들로부터 아무런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1893년 선거의 교훈이었다. 실천적 요구와 배치되는 목표, 즉 사회주의로

18) H. G. Lehmann, *Die Agrarfrage in der Theorie und Praxis der deutschen und internationalen Sozialdemokratie*, Tübingen 1970, 제1장 참조.

의 혁명적 이행은 맑스 앵겔스에 의해 정립된 과학적 사회주의에서 객관적 필연성으로 규정된 것이었고 그것은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받쳐주고 있던 이론적 토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었으며 바로 독일 사민당의 강령 속에 명시적으로 표방되어 있던 당의 목표 바로 그것이었다.¹⁹⁾ 따라서 농촌운동을 통해서 부딪친 독일 사민당의 고민은 사실상 이론과 실천간의 모순문제였다.

이런 현실적 모순에 대한 독일 사민당 내부의 견해는 두 갈래로 갈라졌다. 운동의 현장에서 운동과 직접 씨름해야 했던 당내 실천가들은 - 이들의 주류는 농업인구가 지역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남부 바이에른 지역당원들이었다 - 당의 정치적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따라서 당의 이념적 목표와 별도로 실천적 요구들이 수용되어야 하며 그런 측면에서 농업강령의 채택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러나 탄압법 하에서 당을 어렵게 유지해 오면서 당의 존립이 맑스주의 이념에 의한 일관된 통솔에 의한 것이었다고 간주하던 당 간부회는 실천적 요구의 수용이 곧 그것과 배치되는 이념적 목표의 해체를 가져오고 그것은 동시에 당의 와해까지를 함께 가져오리라고 믿었다. 따라서 당 간부회의 의견으로는 만일 농업강령의 수용이 당의 이념적 목표를 해친다면 그것은 당연히 재고되어야 할 문제였다. 그리하여 농업강령의 수용여부를 놓고 독일 사민당은 당내 논쟁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러나 논쟁의 결과는 처음의 출발지점으로부터 벗어나 빗나간 형태로 전개되어 갔다. 1894년 프랑크푸르트 대회 이후부터 격화되기 시작한 논쟁은 당내의 복잡한 실상을 잘 모르고 있던 앵겔스의 개입에 의해 왜곡되면서 처음의 문제의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였다.²⁰⁾ 즉 애초 당면한 실천적 과제들과 기존의 정식화되어 있던 이론간의 모순으로부터 출발했던 논쟁은 당연히 그 모순의 해결, 다시 말해서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발전해야 했으

19) 실제로 독일 사민당은 자신의 강령 속에 해마다 이런 이론적 토대를 명시하고 있었다. 강신준, 앞의 책, 부록 참조.

20) 문제가 된 앵겔스의 글은 F. Engels, "Die Bauernfrage in Frankreich und Deutschland", MEW Bd. 22 이며 앵겔스가 논쟁에 개입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H. Hesselbart, *Revolutionäre Sozialdemokraten, Opportunisten und die Bauern am Vorabend des Imperialismus*, Berlin 1968, S. 202-212 ; F. Zimmermann, "Friedrich Engels' Hilfe für die deutsche Sozialdemokratie im Kampf gegen Opportunismus im der Bauernfrage in den 90er Jahren des 19. Jahrhunderts" in : *Beiträge zur Geschichte der Arbeiterbewegung*, Berlin 1961, Sonderheft, S. 167-187을 참조할 수 있다.

나 논쟁이 진행되면서 그런 출발지점의 문제의식은 희석되면서 논쟁은 이 양자의 지위의 싸움으로 발전해 갔다. 논쟁은 이론이 실천을 주도할 것인지, 실천이 이론을 주도할 것인지의 양자간의 대립적이고 상호배타적인 태일의 문제로 발전해 갔던 것이다. 그 결과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종용한 남부 바이에른 사민당원들은 당내에서 이론의 지위를 격하시키려는 불순한 기회주의자들로 탄핵을 받았고 농업정책을 반영하는 강령의 채택여부를 상정한 1895년 브레슬라우대회에서 독일 사민당은 농업정책 그 자체의 완전한 폐기를 결의하고 말았다. 그 결과 독일 사민당은 농민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말았다. 그것은 농민의 지지없이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던 권력의 획득에 대한 포기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상 제2인터내셔널에서 사회주의 노동운동이 공통으로 표방하고 있던 운동의 목표인 권력획득의 포기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농업강령의 포기는 이론적 목표의 수호를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바로 그 이론적 목표의 포기이기도 한 것이었다. 그것은 출발점으로부터 벗어난 빗나간 논쟁이 가지고 온 필연적인 모순적 결과였다. 그리하여 논쟁의 변질과 더불어 독일 사민당이 당면하고 있던 “현재의 실천”(농업정책)은 위대한 “미래의 목표”(사회주의 혁명)와 조화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고 따라서 그것은 “미래의 목표”에 의해 결박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것은 권력의 획득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던 유럽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선두주자였던 독일 사민당의 이해할 수 없는 영웅적인 “자살”이었다.

Ⅳ. 수정주의의 출발과정 - 지방의회 참가논쟁과 1848년 혁명해석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로의 이탈은 바로 이런 독일 사민당의 실천적 고민과 그것의 파행적인 “자살”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었다. 그것은 당이 당면했던 실천적 모순과 고민을 함께 안으면서 매우 서서히 시작되었고 처음부터 의도적인 것이었다기보다는 다소 필연적인 발전적 산물이었다. 즉 그는 처음에는 당이 새롭게 당면한 실천문제를 이론의 지위와 무관한 독자적인 문제로, 즉 실천 그 자체의 문제로만 간주하고 그것을 솔직히 수용하도록 설득하고자 노력하였고 그러한 설득이 당을 결박하고 있던 이론적 신앙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는 실천문제의 해결을 위해 당의 이론적 신앙을 절단해 버리고자 노력하였던 것이다. 물론 그러한 의도는 기존의 논쟁과정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이론과 실천간의 조화가 당내에서 어렵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이론적 회의가 아니라 실천적 고민의 산물이었으며 바로 그런 관련 하에서만 비로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고 하겠다.

1850년 베를린에서 출생한 베른슈타인은 은행원으로 근무하던 1872년 베벨이 주도한 맑스주의 정당인 독일 사회민주노동자당²¹⁾에 가입하여 노동운동과 관련을 맺기 시작하였다. 1878년 겨울 스위스로 이주한 그는 신칸트주의자 회히베르크(Karl Höchberg)의 개인비서로 일하다가 1879년 엥겔스를 만나게 되면서 맑스주의자의 길을 걷게 된다. 그는 1881년부터 8년간 독일사민당의 기관지인 “조치알데모크라트(Sozialdemokrat)”의 편집인으로 활동하는데 이 기간 동안 그는 엥겔스로부터 각별한 신임을 획득하게 되며 그의 후광을 업고 독일은 물론 제2인터내셔널 내에서도 권위있는 이론가로서의 위치를 굳히게 된다. 비스마르크의 집요한 탄압으로 1888년 영국으로 망명해 있던 그는 1890년 사회주의자 탄압법이 폐기되자 독일로 귀국하였다. 그리고 그는 독일 사민당의 기관지 “포어베르츠(Vorwärts)”의 통신원이자 당의 이론지 “노이에 차이트(Die Neue Zeit)”의 편집인으로 활동하면서 그가 10년 이상 몸을 바쳐 온 당의 자살과정을 조용히 지켜 보았다. 그는 농업논쟁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당이 당면해 있던 실천적 고민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의 해결 방안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합법화가 이루어진 이후 당이 변화된 새로운 여건 하에서 더 이상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키워가고 있었고 그런 그의 생각은 농업논쟁 과정을 지켜 보면서 결정적인 것으로 굳어져 갔다. 그는 당이 자살로 치닫는 것을 막고자 하였고 이미 당이 획득한 희망 - 권력획득의 가능성 - 을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당이 당면해 있는 문제가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따라서 당은 현실을 직시하고 실천의 문제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당은 자신의 정당성 - 이런 정당성은 당의 존립이 부인당하고 있던 탄압법 하에서 당의 존립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당연히 그것은 오로지

21) 이 정당은 1875년 독일 사회주의 노동운동이 고타에서 사민당으로 통합되기 전 라살레분파와 양립해 있던 맑스주의자들의 정당이었다. 일명 아이제나허(Eisenach)분파라고도 불리운다.

이론에 의해서만 구원될 수 있었다 - 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합법적으로 존재를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현실적인 능력을 시험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그의 생각은 먼저 농촌운동의 실패가 현실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던 1893년 지방의회 참가논쟁을 통하여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지방의회 참가논쟁은 당시 공개, 간접, 차별선거의 형태로 치러지고 있던 프러시아의 지방의회선거에 사민당이 참여할 것인가의 여부를 놓고 전개된 논쟁이었다. 그러나 논쟁의 핵심은 선거참여 여부 그 자체보다는 사회주의에 대한 전망과 관련된 것이었다. 즉 지방의회 선거의 참여를 주장한 베른슈타인은 노동자들의 선거참여가 극히 제한되어 있던 지방의회선거의 조건 때문에 선거참여 자체가 부르조아들과의 연대없이는 불가능한 점을 전제로 사회주의의 실현이 아직 가까운 장래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단계에서는 부르조아들과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그는 당이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 사회주의의 미래와 당면하고 있는 부르조아사회의 현실을 구별해야 하며 미래를 현실로 착각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²²⁾ 그래서 그는 미래에만 머물러 있는 당의 시선을 현실로 돌리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런 생각은 엥겔스와 베벨에 의해 저지당하고 독일 사민당은 참여를 거부하였다. 그가 조금씩 느끼고 있던 당의 실천적 무력증은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맑스 엥겔스의 단단한 끈으로 결박된 것이었다.

1895년의 농업논쟁이 당의 자살로 결말지어지자 그는 당이 지닌 실천적 무력증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를 감행한다. 그는 당의 실천을 결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 이행의 혁명적 방식에 대한 맹목적인 당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런 신앙은 맑스 엥겔스의 1848년 혁명과 1871년 파리코뮌 분석을 통해서 심겨진 것임을 포착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1895년 당의 포박을 절단하기 위해 1848년 혁명의 새로운 해석인 헤리티어의 “1848년 프랑스 혁명사” 독어판을 발간하고 그것의 주석 및 후기를 집필하였다.²³⁾

맑스 엥겔스에게 있어서 1848년 혁명은 이전의 모든 정치적 혁명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새로운 혁명이었다. 그것은 부르조아 계급과 노동자 계급간의 대립에 기초한 최초의 계급전쟁이었고 자본주의의 미래를 분명하게 예견해 주는

22) E. Bernstein, “Die preussischen Landtagswahlen und die Sozialdemokratie”, *Neue Zeit* Bd. 11(1892/93), S. 173ff.

23) Louis Heritier, *Geschichte der französischen Revolution von 1848*, Stuttgart 1895.

혁명으로서 사회주의 이행의 본질과 필연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주의 이행의 경제적 조건, 즉 자본주의의 발전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기 전에 발발한 혁명이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본주의적 발전이 충분히 성숙하고 나면 필연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혁명이었다. 말하자면 1848년 혁명은 맑스 앵겔스에게 있어서 사회주의 혁명의 본원적인 전형을 제공하는 것이었다.²⁴⁾

그러나 베른슈타인은 그 혁명의 감동적인 내용보다는 그것의 결과에 보다 주목하였다. 1848년 혁명은 영웅적인 것이긴 하였지만 그것이 가져다 준 결과는 전혀 영웅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반혁명을 유발하였고 보수반동의 강화에 기여하였을 뿐이었다. 혁명은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혁명적 노력의 허구성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혁명이 신화에 불과하며 현실을 이것과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것은 혁명의 신앙에 대한 그의 경고였다. 그러나 그의 이 글은 자신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당은 아직 그의 충고에 의아해 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베른슈타인은 이제 당의 결박을 끊기 위한 보다 광범위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실천문제에 대한 당의 단순한 각성을 촉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러한 각성을 가로막고 있는 맑스 앵겔스의 권위 전체를 문제로 삼고자 결심한다. 즉 그는 당이 실천으로부터 달아날 수 있었던 도피구를 차단하기로 결심하였고 그것은 그 도피구가 가진 권위를 훼손시킴으로써 가능하리라고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그의 작업은 1896년부터 “노이에 차이트”에 3년에 걸쳐 연재하게 되는 “사회주의의 제문제(Probleme des Sozialismus)”를 거쳐서 드디어 1899년 “사회주의의 제전제 및 사민당의 과제들”로 종착역에 도달하게 된다.

V. 수정주의의 전면적 성립 - “사회주의의 제전제 및 사민당의 과제들”

베른슈타인 작업의 종착역이 되는 “제전제”는 당의 실천적 무력증의 원인이 되고 있던 맑스 앵겔스 이론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는 이제 당을 결박

24) K. Marx, “Die Klassenkämpfe in Frankreich 1848-1850”, MEW, Bd. 7.

하고 있는 맑스 엥겔스의 신앙, 즉 이론들을 총체적으로 해부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훼손시킴으로써 당이 더 이상 이들 이론들을 핑계로 실천으로부터 달아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써 그는 당이 당면한 실천문제에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당을 실천문제로부터 구원해 내고자 하였다. 그의 이런 의도는 “제전제”의 다음 귀절에서 이미 뚜렷이 명시되고 있다. 즉 사민당의 영향력은 “만일 사민당이 현실적으로 이미 사문화되어 버린 문귀들(Phras-eologie)로부터 스스로 해방되고 오늘의 현실 속에 자리잡은 하나의 민주 사회주의 개혁정당(eine demokratisch-sozialistische Reformpartei)으로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하고자 하는 용기를 갖는다면 현재보다 훨씬 더 증폭될 것이다.”²⁵⁾ 라고 그는 밝히고 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는 당이 결박되어 있는 매듭들을 순서대로 잘라 나가 고자 그 구조를 먼저 정리하였다. 그는 당을 결박하고 있던 족쇄를 세 가지로 파악하였다. 즉 그 족쇄는 첫째 역사발전 법칙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과 둘째 그러한 신앙의 내용을 이루는 사회의 혁명적 변화의 필연성에 대한 신앙, 셋째 그런 혁명적 변화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경제적 조건의 필연성에 대한 신앙으로 정리되었다.

그는 먼저 당이 현재의 실천을 유보할 수 있도록 만든 미래에의 안이한 희망을 받쳐주는 것을 사적 유물론으로 규정하고 이를 그의 첫번째 논의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유물론을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필연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입장으로 정리하고 따라서 “유물론자란 신을 갖지 않았을 뿐인 칼빈주의자”²⁶⁾에 다름아니라고 규정하였다. 왜냐하면 유물론자에게 있어서는 항상 모든 사물의 움직임이 필연성에 의해 사전에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것은 예정조화로 이루어진 기독교적 신앙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과학적 사회주의는 바로 이런 미망의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하는 것이다.

물론 베른슈타인의 이런 유물론 해석은 맑스의 사적 유물론을, 맑스가 스스로 비판하였던 18세기의 기계적 유물론과 동일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베른슈타인은 누구보다도 그런 맑스의 본래적인 유물론을 잘 알고 있었다. 베른슈

25) E. Bernstein, *Die Voraussetzungen des Sozialismus und die Aufgaben der Sozialdemokratie* Stuttgart 1899, S. 165.

26) E. Bernstein, 같은 책, S. 4.

타인은 고의적으로 맑스를 왜곡시키고 그러므로써 그것의 권위를 훼손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그에게는 이미 세상을 떠난 맑스와 엥겔스의 명예보다는 아직도 현존하고 있는 당의 자살을 막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다.

사적 유물론에 이어 맑스 엥겔스 이론에 대한 베른슈타인의 훼손은 사적 유물론의 논리적 귀결인 계급투쟁으로 이어진다. 유물론적 역사관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는 경제적 이해를 기초로 한 계급들간의 투쟁으로 파악되고 그러한 계급투쟁은 정치투쟁을 통해서만 비로소 완전한 형태를 띠는 것이었다. 경제적 해방은 정치적 해방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고 따라서 경제적 이해에 기초한 계급투쟁은 정치투쟁과 통일적 연관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러나 베른슈타인은 맑스가 통일적인 것이라고 주장한 이 양자간의 관련은 사실상 통일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맑스이론 내에서 이원화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²⁷⁾ 즉 그는 맑스의 계급투쟁이론이 정치적으로 급진적인 불량키즘과 경제적인 개혁주의의 엉성한 혼합으로서 양자는 서로 통일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정치적 불량키즘은 경제적으로 아무런 성과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바로 그런 단적인 예가 1848년 혁명과 1871년 혁명으로 그들 불량키즘 혁명이 가져다 준 것은 경제적 해방이 아니라 오히려 보수반동의 강화와 경제적, 영락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바로 그런 출구없는 이원론에 매달린 독일 사민당은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부둥켜 안은 채 귀중한 실천적 계기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베른슈타인은 계급투쟁의 경제적 기초인 착취이론을 이루고 있는 맑스의 잉여가치론을 비교적 짧게 비판하고 난 다음 결정적인 마지막 “수정”을 가한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발전경향에 대한 해석이다. 이것은 독일 사민당이 당면하고 있던 현실의 성격을 결정짓는 것으로서 베른슈타인의 본래적인 의도이자 주된 관심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즉 그것은 사민당이 과연 지금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면서 동시에 대답이기도 하다.

맑스에 의하면 자본주의적 발전은 계급의 분화를 촉진시킴으로써 계급투쟁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생산의 사회화 경향을 통하여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물질 조건을 준비한다. 따라서 그것은 주관적으로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역량의 증가와 객관적으로 혁명의 경제적 조건이 성숙하는 경향을 땀으로써 자

27) E. Bernstein, 같은 책, S. 60ff.

본주의의 사회주의로의 혁명적 이행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든다. 자본주의는 자신의 내부로부터 비롯된 발전경향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붕괴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베른슈타인은 맑스의 이런 기본논리에 아무런 문제제기를 않고 그것을 모두 인정한다.²⁸⁾ 그러나 그의 문제의식은 본질적으로 그런 맑스의 과학적 교의의 진리성 여부에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붕괴경향이 일반적인 경향으로는 분명히 옳지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발전이 진행되는 시간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²⁹⁾ 그런 시간이란 이런 발전의 성숙된 정도를 규정하며 붕괴는 그러한 발전이 충분히 성숙한 다음에야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민당이 당면해 있는 독일의 현실은 아직 그런 발전경향이 충분히 성숙해 있지 않으며 그런 증거로 그는 소위 “새로운 경향”으로서 자산가들의 실적 증가와 특히 중산층의 증가, 독점과 주식회사 제도에 의한 자본주의적 모순의 완화경향, 농업부문에서의 생산의 소규모화 경향 등을 지적하였다.³⁰⁾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붕괴의 조건이 아직 충분히 성숙해 있지 않고 따라서 사회주의 혁명의 조건이 아직 성숙해 있지 않은 지금 당장 사민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로 집약된다. 그것은 말하자면 사민당의 이론적 목표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현재적 과제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의 문제로 논의가 좁혀지면 이제 그것은 당장의 실천의 문제로 논의가 옮겨오게 되며 베른슈타인의 기본의도는 바로 이 부분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논의는 목표로서의 혁명이 포기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혁명의 조건이 성숙해 있지 않고 따라서 이런 조건 하에서는 혁명의 조건이 성숙할 때까지 팔장을 끼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것의 실현을 위해서 설사 “혁명의 위대한 과업과는 거리가 있는 사소한 과업”³¹⁾ 일지라도 무엇인가를 실천해야만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말하자면 그의 문제제기는 맑스의 이론적 목표에 대한 논리가 맞다고 하더라도 - 보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에게는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무어 그리 중요하느냐는 것이지만 -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는 것이다. 사민당은 어떤 말의 진리 여부에 대한 토론을 일과로 삼는 스콜라적 조직이 아니라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현실의 운동조직이기 때문이

28) E. Bernstein, 같은 책, S. 6.

29) E. Bernstein, 같은 곳.

30) E. Bernstein, 같은 책, S. 82ff.

31) E. Bernstein, 같은 책, Vorwort, S. xxii.

다. 그리하여 그는 더 이상 무의미한 이론적 목표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눈 앞의 실천적 과제의 문제로 논의의 중심을 옮기자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론의 결박으로부터 당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Ⅶ. 베른슈타인 수정주의의 현재적 의미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이론적인 문제였다기보다는 실천적인 문제와 깊이 연루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실천적 문제의 본질은 새로운 객관적 조건의 변화로 말미암은 사회주의 노동운동에서의 이론과 실천 간의 모순이 조화로운 해소가 아니라 상호대립적인 관계로 변질되면서 운동의 총체적 파국의 위기로 발전해 가는 사태에 있었고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바로 그런 파국을 막고자 하는 사회주의 노동운동 내부로부터의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당대의 가장 탁월한 이론가로서 맑스 앵겔스이론의 신뢰 받는 교사였던 베른슈타인의 이론적 탈선은 바로 이런 노력의 일관된 맥락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런 그의 “기본의도”를 전제할 때만이 그의 명백히 의도적인 “배신행위”는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런 배경을 전제로 할 때만이 그가 자신의 문제제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앵겔스의 저작을 왜곡시켰던 점³²⁾과 당대의 최고수준의 이론가였던 그의 수정주의의 이론이 이론적 완성을 보지 못하고 급조되고 불완전한 것으로 남았던 점³³⁾ 등이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로부터 남겨지는 진정한 함의는 그의 이론이라기보다는 그의 의도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만일 그에게 재심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그의 의도에 대한 재검토일 것이고 그것은 변혁의 객관적인 조건이 실천적 전망을 흐리게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사회변혁을 지향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론과 실천간의 관련에 대한 가치있는 고민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여진다.

새로운 사회적 발전경향이 사회변혁의 전망을 희석시키는 조건 하에서는 일반적으로 변혁운동의 목표와 그것의 당면의 실천간에 모순이 발생한다. 그러

32) B. Gustafsson, 앞의 책, S. 367.

33) B. Gustafsson, 앞의 책, S. 9.

나 그런 모순은 애초 변혁운동의 완성을 지향하면서 양자간의 조화로운 해결을 목표로 출발하지만 그것의 전개과정에서 양자간의 대립적 관계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리고 이런 모순의 변질은 자칫 변혁운동 전체의 파행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베른슈타인이 고민하던 19세기 말 독일의 사회주의 노동운동이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바로 이런 역사적 조건 하에서 그런 시대적 고민의 산물로서 등장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에게 매도되는 수정주의라는 낙인을 전혀 개의치 않고³⁴⁾ 이러한 모순의 변질에 대해 그것을 원래의 문제의식으로 되돌리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그러나 역사에서 보듯이 베른슈타인의 이런 “기본의도”는 독일 사회주의 노동운동 내부에서 관철되지 못하고 만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결과로서 독일 사회주의 노동운동은 이론과 실천간의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가장 치욕적인 형태의 분열과 그것의 당연한 귀결로서 그 유명한 1914년의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³⁵⁾

베른슈타인의 문제제기가 사회주의 노동운동에서 갖는 함의는 이미 독일 사민당 내에서 농업문제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기 시작하던 1892년 당대회에서 남부 바이에른 사민당을 이끌고 있던 폴마(G. Vollmar)(그는 나중에 당내 기회주의 분파의 대표자로 지목당한다)의 다음과 같은 얘기 속에서 충분히 시사되고 있었고 이것은 나중에 독일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운명을 예견하는 것이었다. “사민당은 본래적인 의미에 있어서 하나의 비판운동으로서 어떤 신조를 이미 간직한 것이거나 어떤 강령원칙들을 신조로서 설정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강령원칙들을 매일매일 새롭게 입증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간주하는 과제를 가진 운동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사민당을 가리킴 - 필자)은 필연적으로 부패해 버릴 것이다.”³⁶⁾

34) “제전제”의 영역판 서문에서 시드니 후크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베른슈타인은 공개적으로 자신을 ‘수정주의자’로 불렀고 그것은 상당히 특이한 사실이다”(Sidny Hook, “Introduction” in : E. Bernstein, *Evolutionary Socialism*, New York 1970, P.vi i) ; “그(베른슈타인을 지칭 - 필자)는 결코 자신이 수정주의자임을 부인하지 않았고...” (같은 책, P.viii).

35) 그것은 바로 제2인터내셔널에서의 결의를 배반하고 독일 사민당이 제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는 프로이센의 전쟁국채안에 대한 제국의회에서의 승인을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강신준, “제2인터내셔널에서의 마르크스주의”, 『이론』(1992년 가을)참조.

36) *Parteitag 1892*, S. 206 ; A. Weiss, *Die Diskussion über den Historischen Materialismus in der deutschen Sozialdemokratie 1891-1918*, Wiesbaden 1965, S. 14에서 재인용.

베른슈타인 수정주의의 현재적 함의는 바로 사회주의 노동운동을 하나의 고정된 신조로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역동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데 있으며 그런 역동성을 상실할 때 사회주의 노동운동은 부패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의 종국은 파국뿐이라는 점을 상기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수정주의는 사회주의 노동운동 내부의 문제로 계속 견지되어야 할 것이며 바로 그런 맥락에서 그것의 현재적 의미가 존재한다고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콜라코프스키의 신중한 지적처럼 수정주의란 맑스주의적 전통이 확립되지 않은 곳에서는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³⁷⁾

참 고 문 헌

1. 강신준, 『수정주의 연구 1』, 이론과 실천 1991
2. _____, “제2인터내셔널 시기의 마르크스주의”, 『이론』(1992년 겨울)
3. P. Angel, *Eduard Bernstein et l'volution du socialisme allemand*, Paris 1961
4. E. Bernstein, “Die preussischen Landtagswahlen und die Sozialdemokratie”, *Neue Zeit* Bd. 11(1892/93)
5. _____, *Die Voraussetzungen des Sozialismus und die Aufgaben der Sozialdemokratie*, Stuttgart 1899
6. _____, *Evolutionary Socialism*, New York 1970
7. F. Engels, “Die Bauernfrage in Frankreich und Deutschland”, *MEW* Bd. 22
8. “Engels an Bebel 1885. 6. 22” in ; *MEW* Bd. 36, S. 336
9. P. Gay, *The Dilemma of Democratic Socialism. Bernstein's Challenge to Marx*, New York 1952
10. B. Gustafsson, *Marxismus und Revisionismus*, Frankfurt 1972
11. L. Heritier, *Geschichte der französischen Revolution von 1848*, Stuttgart 1895

37) L. Kolakowski, *Main Currents of Marxism*, vol. 2, New York, P. 98.

12. H. Hesselbart, *Revolutionäre Sozialdemokraten, Opportunisten und die Bauern am Vorabend des Imperialismus*, Berlin 1968
13. K. Kautsky, *Bernstein und das sozialdemokratische Programm. Eine Anti-Kritik*, Berlin-Bonn 1976
14. L. Kolakowski, *Main Currents of Marxism*, vol. 2, New York
15. J. Kuczynski, *Die Bewegung der deutschen Wirtschaft von 1800 bis 1946*, Berlin /Leipzig(o. J.)
16. H. G. Lehmann, *Die Agrarfrage in der Theorie und Praxis der deutschen und internationalen Sozialdemokratie*, Tübingen 1970
17. V. I. Lenin, *Imperialism*, International Publishers Company, Inc., New York 1933
18. R. Luxemburg, "Sozialreform oder Revolution?" in: *Gesammelte Werke* Bd. 1, Berlin(O) 1971
19. K. Marx, "Die Klassenkämpfe in Frankreich 1848-1850", *MEW*Bd. 7
20. A. Weiss, *Die Diskussion über den Historischen Materialismus in der deutschen Sozialdemokratie 1891-1918*, Wiesbaden 1965
21. F. Zimmermann, "Friedrich Engels' Hilfe für die deutsche Sozialdemokratie im Kampf gegen Opportunismus im der Bauernfrage in den 90er Jahren des 19. Jahrhunderts" in: *Beiträge zur Geschichte der Arbeiterbewegung*, Berlin 1961, Sonderheft